



인협, 2014모스크바국제도서전 참가 총 165건 240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조정석)는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경제전시장에서 개최된 2014 모스크바국제도서전에 한국인쇄문화관을 조성해 참가했다. 63개국 1027개사 참가한 가운데 2만㎡ 규모로 개최된 이번 도서전에서 인협은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한국관 참가 업체들의 수출 상담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총 165건 24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인협은 인구 1억4천만명, GDP 2조1천억달러(세계 8위) 규모의 신흥 경제대국인 러시아의 인쇄산업 규모 및 출판 산업 시장을 파악하는 한편, 인쇄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서전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Printing Korea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우수함을 알리는 한편, 참가 업체의 러시아 인쇄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인접 국가의 인쇄시장 동향과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구매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유구한 역사성과 수준 높은 기술을 홍보했다.

인쇄문화 우수성 · 2016세계인쇄회의 홍보

한국관은 A홀에 36㎡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아시아프린팅, 팩컴코리아(주), (주)타라TPS, (주)프린피아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면서도 협회의 로고

색인 녹색을 강조했으며, 참가사마다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상담을 보장했다. Printing Korea의 타이틀로 통일성을 이루고 방문객이 한국의 인쇄관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현황 등을 홍보용 패널을 통해 홍보했다. 아울러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와 현황, 주요 수출업체의 명단이 포함된 영문 홍보물과 2016년 세계인쇄회의 한국 개최 홍보용 리플릿도 함께 배포했다.

특히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옛 인쇄방식에 따라 직접 시연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모스크바도서전에 처음으로 참가하고 한류의 영향도 있어 '직지'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독특한 형태의 전시관과 직지 체험 행사가 모스크바 지역 방송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모스크바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모스크바도서전 참가업체〉

(주)타라TPS



(주)타라TPS는 전시 기간 동안 약 31개 업체와 약 3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인쇄물 수출에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가격 및 품질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 향후에도 지속적인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타라TPS는 전시 기간 동안 약 31개 업체와 약 3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인쇄물

역해서 써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가격 및 품질에 만족하는 바이어가 많았고,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모스크바까지 배송 및 통관 과정이 길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팩컴코리아(주)



팩컴코리아(주)는 전시 기간 동안 약 38개 업체와 약 6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사례 중에는 성사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있어 만족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모스크바도서전에 반드시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가격 및 품질에서 러시아 업체보다 경쟁우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스크바까지의 긴 운송시간과 복잡한 통관 절차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팩컴코리아(주)는 전시 기간 동안 약 38개 업체와 약 6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사례 중에는 성사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있어 만족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모스크바도서전에 반드시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가격 및 품질에서 러시아 업체보다 경쟁우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스크바까지의 긴 운송시간과 복잡한 통관 절차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주)프린피아



(주)프린피아는 전시 기간 동안 약 44개 업체와 약 5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러시아인들의 독서 열기에 크게 놀랐다고 했으며, 러시아어로 제작된 회사소개서를 직접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상담고객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주)프린피아는 전시 기간 동안 약 44개 업체와 약 5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러시아인들의 독서

가능성 높은 러시아 인쇄시장 확인

인협 및 참가사들은 이번 전시회가 이전의 도서전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가능성이 있는 시장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러시아인들의 높은 독서열기와 가격 및 품질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지만 배송 및 통관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어 모든 자료(회사소개서, 직지 소개, 부스 이름 등)를 러시아어로 번역해 참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문객의 폭 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주)아시아프린팅



(주)아시아프린팅은 전시 기간 동안 약 52개 업체와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사례 중에는 성사 가능성 있는 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어 크게 만족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부스 회사 이름을 러시아어로 번

(주)아시아프린팅은 전시 기간 동안 약 52개 업체와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사례 중에는 성사 가능성 있는 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어 크게 만



2



3



4

1. 2014 모스크바국제도서전에 (주)아시아프린팅, 팩컴코리아(주), (주)타라TPS, (주)프린피아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2. 2014 모스크바국제도서전이 열린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경제전시장 3~4.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옛 인쇄방식에 따라 직접 시연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